

## [나연 1차 오디션 대본]

### #2 다음날 상담실 (낮)

이진이 에어팟을 낀 채 상담실을 향해 걸어온다. 귀에선 슈만의 피아노협주곡 A단조가 흘러나온다. 잠시 뒤 상담실에 들어오는 나연. 그의 모습은 환자도 아니고 괴짜도 아닌 그저 평범한 27세 청년이다.

이래 나연씨? 이쪽으로 오세요.

나연 (어색해 하며 의자에 앉는다)

이래 오는 길 많이 추웠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아 저는 나연씨와 함께 할 금이래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차를 가리키며) 녹차예요. 드세요.

다소 온화해진 이래. 이래는 자신의 잔에서 티백을 몇 번 흔들더니 이내 바로 빼 버린다.

<<<여기부터 '나연'의 대사만 읽어주세요(이래 역할 목소리 출연만 가능)>>>>

나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래 (씩 웃으며) 박나연씨. 졸업때문에 오신 거 맞죠?

나연 .. 네

이래 지금이 (서류를 살피며) 스물 일곱..인데 입학도 현역으로 하셨고. (나연을 바라본 후 미소를 지으며) 굉장히 늦게 졸업하시네요.

나연 맞아요. 늦게 졸업하는거죠.

이래 이제라도 오셨으니 빨리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그래야죠

나연 (어이없다는 듯) 재밌네요. 취업이요? 지금 서른에 군대 가게 생겼는데.

이래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연씨 위해서요.

나연 아 절 위해서요?

이래 나연씨. 잘 들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경고 범위인 거 알죠? 더 커지기 전에 저희가 연락 드린겁니다.

나연 제 상태는 제가 더 잘 알죠. 저 밥도 잘 먹고 잠도 되게 잘 자요. 이게 우울증 경고라고요?

이래 (차를 마시며) 우울해도 밥 잘 먹고 잠 잘 잡니다.

나언 아니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에 잠기고.. 그 속에 우울함이 조금 있는 것 뿐인데 (똑바로 쳐다보며)제가 위험해 보입니까? 문자가 올 때마다 이상했어요.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 하더라고요.

이래 지금은 괜찮겠죠. 하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우울증에 도달하는 겁니다. 봤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약에 빠지고. 나라에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도 존재하는 겁니다. 나언씨를 돕기 위해서죠.

나언 (웃으며)네? 돕는다고요? 통제하는 게 돕는 건가요?

이래 ‘통제’라니요. ‘권장’하는 거죠.

나언 졸업도 못해 취업도 못해. (실소와 함께)이게 무슨 권장이예요. 우울이 병이에요? 죄예요?

이래 나언씨.

나언 우리 다 우울함 정도는 갖고 살아가잖아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래: (눈을 질끈 감으며)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언을 똑바로 쳐다보며)보세요.